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등 '올해의 불서 10' 불교출판문화협회 선정, 내달 13일 시상식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등 10권의 불서가 제3회 '올해의 불서(佛書) 10'로 뽑혔다.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초판된 불교 관련 저·역서(시, 소설, 전집 등 제외) 가운데 10종을 '올해의 불서 10'으로 선정했다.

△**곧게 늙은 절집**(심인보 저/지안 펴냄) 사찰 건축의 아름다움을 조명한 기행서.

△**까말라실라의 수습차제연구**(중암 저/불교시대사 펴냄) 인도의 고승 까말라실라와 중국의 고승 마하연이 티베트의 찰에 사원에서 벌인 격론을 다룬 연구서.

△**나무에 새겨진 팔만대장경의 비밀**(박상진 저/김영사 펴냄)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대한 궁극증을 해결해 주는 길잡이.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최만희 저/운주사 펴냄) 치열한 구도 정신으로 일관했던 삼성 스님의 자서전.

△**산티데바의 행복수업**(김영록 옮김/불광출판부 펴냄) 인도 산티데바의 보리수행을 영어로 옮긴 것을 다시 우리말로 쓴 책.

△**상식으로 만나는 불교**(계한 저/정우서적 펴냄) 초심자들을 위한 불교 입문서로 불

교에 대한 기초 교리나 용어들을 쉽고 자세하게 풀이.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월호 저/마음의 숲 펴냄) 웰다잉을 주제로 한 에세이.

△**은둔(조연현 저/오래된 미래 펴냄)** 근현대 선승 33명의 일화와 치열한 구도행에 대한 추모, 진정한 수행자의 길을 제시하는 현장 기록서.

△**정말 멋져 누가?**(박선영 저/민족사 펴냄) 부처님 탄생설화에서부터 입멸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엄마와 '이현'이라는 어린 이와 대화로 풀이.

△**화두를 만나다**(김영옥 저/프로네시스 펴냄) 화두와 선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수

행서. 심사위원으로는 김호성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마성 문헌연구소장 스님, 임연태 현대불교신문 부국장 등이 참여했다. 김호성 교수는 "이번 불서 선정은 독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책을 소개 추천함으로써 많은 독자들이 불서를 더 많이 읽고 감동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출판문화협회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지원금 500만 원과 기타 후원금 등으로 선정된 책을 구입해 해외사찰 등에 보낼 예정이다. 시상식은 12월 13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02)926-8361 **김주일 기자**

과거형 사랑이 주는 삶의 저력



1인치의 사랑

박영우 지음
이유 펴냄 | 6500원

사랑과 허무, 상실과 부재를 통한 자기 인식과 삶에 대한 관조. 박영우 시인(경기도 문예창작과 교수)은 네 번째 시집 <1인치의 사랑>에서 과거완료형의 사랑을 통해 '부재의 존재성'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 드러내 보이는 의미와 궤를 함께하는 '부재의 존재성'이다. '길'을 읽어 보자.

풍경은 밖에 있고 상처는 내 안에 산다. 구멍 난 가슴들이 상사화로 피고 지고 욕망의 빈 지방만이 허무를 터트린다.

혼자 가고 싶은 길, 같이 걷고 싶은 사람 혼돈의 바람 부는 텅 빈 산사 앞에서 오늘도 길을 만들고 그 길을 지운다.

-길(전문)

시집에 수록된 시편들은 한결같이 기억의 바깥쪽에서 삶의 안쪽을 아프게 하는 정황들로 묘사되고 있다. 현재진행형이 아니라 이미 현재를 떠나 과거에 침잠된 아픔들이 오늘의 삶의 저력이 되는 아이러니. 그래서 박영우 시인이 돌보고 아우르는 인생의 '순간'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임연태 기자**

인생의 바른 길 별에게 묻는다



별처럼 사는 법

이시우 지음
우리출판사 펴냄 | 1만원

별에게도 생사(生死)가 있다. 오늘 밤 우리 눈에 비치는 저 별빛이 수억 년 전의 빛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별이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통해 우리 인간의 삶을 반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현대 천문학의 제1세대 학자인 이시우(前 서울대 교수) 박사의 눈에 비치는 별은 무소유와 무집착 무경쟁을 통해 가장 천연스러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성자(聖者)의 표상이다. 인간은 유한(有限)과 유상(有相)의 세계에서 경쟁과 투쟁으로 고통 받는 존재이고 별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 별은 스스로의 양식을 가지고 태어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소멸하면서 또 다른 탄생을 준비한다. 별도 무량한 운회의 존재이다.

별과 사람이 닮았다는 것, 사람도 지구도 다 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면 별처럼 사는 법을 알게 된다는 것이 이시우 박사의 지론이다. 이미 이시우 박사는 <별과 인간의 일생> <천문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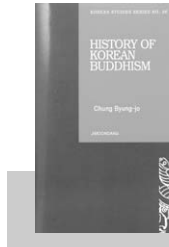
와 별과의 대화> <천문학자가 풀이한 금강경의 비밀> <천문학자 우주에서 별다를 찾다> 등의 저서를 통해 별과 인간과 절대진리(眞理)를 돌로 보지 않는 장엄한 이론을 제시해왔던 터다.

이시우 박사는 <별처럼 사는 법>에서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지녀야 할 가치가 바로 '무소유'와 '무집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둘을 실천할 수 있으면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것이고 열반의 세계에서 가장 밝은 대자유는 별로 존재하는 별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별과 인간' '별과 진리' '별과 마음' '별과 행복' 등 네 묶음으로 된 '별처럼 사는 법'은 별을 과학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메신저 혹은 참된 삶의 표본으로서의 별을 이해하고 배우라고 강조한다. 이시우 박사는 별이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버림'으로 설명한다. 채우고 차지하고 갖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간의 삶과는 대조적인 측면에서 별의 일생을 설명함으로써 유한한 인간의 삶이 무궁한 진리의 궤도로 올라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별처럼 사는 법>에서는 <법구경> 등 여러 경전의 귀한 말씀들과 세계사에 빛나는 철학자와 사상이 예술가 등이 남긴 주옥같은 금언들도 만날 수 있다. 별을 이해하고 우리 삶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있어 경전 말씀과 성인들의 금언이 더 없는 '보조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진리라는 한 곳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사상적 측면서 살핀 한국불교사 첫 '영문서'



History of Korean Buddhism

정병조 지음
지문당 펴냄 | 2만원

한국불교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은 의외로 낮다. 유럽이나 미주지역에 부는 불교바람은 달라 이 라마의 영향을 받은 티베트 불교이거나 '젠(禪)'을 통해 전파된 일본불교다. 반세기 가까운 시간동안 한국불교의 세계화 노력이 전개됐지만 그리 큰 포교 성과를 이루지 못한 원인 가운데 가장 크게 꼽는 것이 '언어의 장벽'이다.

'언어의 장벽' 가운데서 포교현장에서 부딪히는 일상 언어의 소통문제는 점차 '해결' 되는 추세다. 그러나 단행본이나 논문 등 저작물을 통한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한국불교의 역사와 사상을 알리는 서적이 해외로 유통되지 못한 점은 적지 않은 아쉬움으로 지적돼 왔다.

동국대 정병조 교수(한국불교연구원장)가 세계무대를 겨냥해 내놓은 <History of Korean Buddhism>은 한국불교의 역사를 사상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저술이다. 사상사적 측면에서 한국불교를 해외에 소개해야 하는 데는 몇 가

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한국불교는 중국을 통해 받아 들여졌지만 독자적인 토착화의 과정을 거쳐 대승불교를 재해석했다는 점이다. 그 사상적 특성이 선교(禪敎)융합의 기풍, 다양한 종파적 특성의 단순화, 민간신앙의 불교적 습합 등으로 요약된다.

정 교수는 "중국불교가 종파적 전개를 추구해 왔다면, 한국의 경우는 일승(一乘)을 지향하였다. 일본불교가 정토(淨土)중심적 불교를 정착시켰다면 한국은 선불교 특히 선교융합적 경향이 강하다. 또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 사라져가는 수도(修道)중심적 교단 운영이 한국불교에서는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동양 3국 불교사의 흐름을 정의하고 "따라서 한국불교는 보다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되어야 하며 독자적인 캐릭터를 지닌 문화현상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교수가 살핀 한국불교사에서 가장 불교가 바람직스러운 사상적 풍토를 형성한 시기는 6세기 후반부터 9세기 초반. 지도자들의 불교관이 건전했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중생의 편에 서 있는 불교의 모습이 오늘에까지 찬란한 유산으로 그 정신성을 전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고려의 불교는 국교로서의 특정한 기반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의식주의와 왕권강화의 기복적인 성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망의 길을 자초했다"고 정 교수는 살피고 있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2	사찰 100대 100선	하균	불교신문사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5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기림	청화	상상엔간
6	하루 108배 내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7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나	성철	장경각
8	화, 육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툰텐 초드론	미디어 월
9	행복한 미소	성전	개미
10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불서출판 윤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윤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종과 나한이 삼재판단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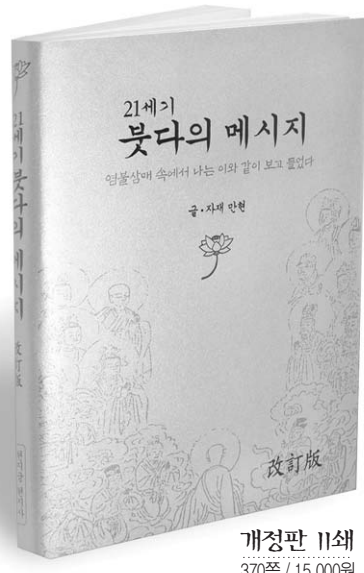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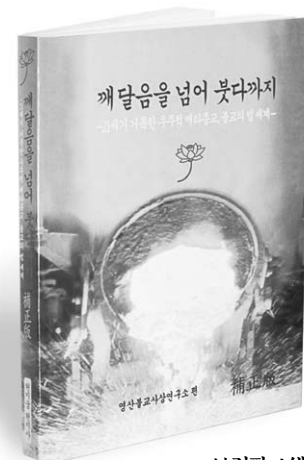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尊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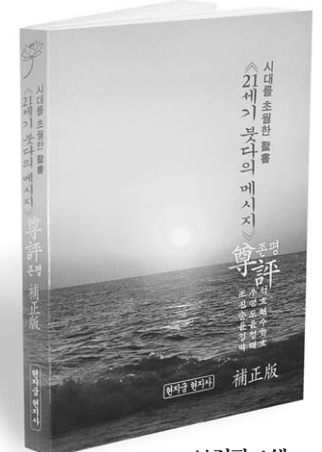
개정판이 나와
발행 2년만에 11쇄 !!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